월드컵 개최를 앞둔 카타르의 대규모 인프라 확충

1. 월드컵 대회 유치 배경

□ 에너지산업 의존도를 낮추려는 경제 다변화정책의 일환

○ 카타르는 풍부한 원유(매장량 259억 배럴, 세계 12위)와 천연가스(896조 ft^3, 3위)를 보유한 에너지 부국임.

○ GDP의 50%, 수출의 85%, 재정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2008년 수립된 국가개발계획(Qatar National Vision 2030 plan)에 따라 지식, 문화, 관광부문을 적극 육성하고 있음.

– 2009년의 경우 연 40만 명 수준이던 관광객 수가 100만 명으로 늘었고 관광수입은 GDP의 8.4%인 82억 달러에 달하였음. 카타르는 월드컵 유치를 통해 관광수입 증대[1]와 국제적 위상 제고를 기대하고 있음.

2. 인프라사업 추진 현황

□ 개 요

○ 2022 카타르월드컵 준비를 위해 향후 10년간 600억 달러의 신규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예정임.

1)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의 경우 방문객이 약 40만 명에 달하였음.

○ 담당 부처(The Ministry of Municipal Affairs and Urban Planning)는 중앙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각종 인프라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카타르 디아르(Qatar Diar)[2]은 호텔과 관광지, 경기장 등 국내 부동산 투자에 힘쓰고 있음.

□ 호 텔

○ 국제축구연맹(FIFA)은 6만 개의 호텔 객실을 구비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카타르는 124억 달러를 투입하여 현재의 2배 수준인 9만 개의 객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2010년에만 약 40개 호텔이 건립되었고, 현재 17개 신규 사업이 추진 중임.

□ 경기장

○ 수용인원이 45,000명 이상이고 냉방시스템이 구비된 경기장이 필요하므로, 40억 달러를 투입하여 9개 스타디움을 신축하고 기존 3개를 개보수할 예정이며 일부 경기장은 상·하단이 분리 가능한 형태로 건설 중임.[3]

□ 도로 및 철도

○ 정부는 인프라 중 도로, 철도 건설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카타르 공공사업청(Public Works Authority: Ashgal)은 2015년까지 200억 달러를 투자하여 도로를 건설하고 하수처리 부문을 개보수할 계획임.

– 주요 사업은 루사일 고속도로(Lusail Expressway), 도하 고속도로(Doha Expressway)와 두칸 고속도로(Dukhan freeway), 도하 해저터널(Doha Bay Crossing) 등임.

2) 카타르투자청(Qatar Investment Authority)의 자회사로 2004년 설립된 부동산 전문개발회사임. 해외 부동산 투자와 Lusail 교육도시 건설에 주력하여 왔으나, 현재는 호텔과 관광지, 스타디움 건축 등 국내 부동산 투자에 힘쓰고 있음

3) 카타르(Qatar)가 인구 85만 명의 소국으로, 자국 프로축구 리그(12개 팀)를 운영하는 데에는 2만~2만 5천석 규모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정부는 월드컵 이후 경기장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 카타르 철도개발공사(Qrail)[4]도 350억 달러를 투입하여 철도네트워크를 확충할 예정임.

- 대표적 사업인 도하 도시철도프로젝트(Doha Metro Project)는 총 연장 358Km (119km의 지하철, 73km의 고가 경전철, 166km의 지상철)로 월드컵 경기장을 경유하는 12개 역사를 포함 100개의 역사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월드컵을 10년 앞둔 현재 경험 부족과 지형, 기후 문제 등으로 도로 및 철도 건설이 지연되고 있음.

* 지하철 건설은 지반이 카르스트식 석회암층으로 구성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철도 건설도 덥고 습한 기후 및 모래바람 문제로 지연되고 있음. 특히 세계 최장의 연륙교[5]로 큰 기대를 모은 카타르-바레인 연륙교(Qatar-Bahrain Causeway) 건설은 2010년 여름 이후 중단되었음.

3. 카타르 인프라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 카타르는 중동 굴지의 부국으로서 각종 사업참여자 입장에서 자금 조달이 용이한 장점이 있음. 그러나 카타르의 건설시장은 인근 중동국가들과 기술력 있는 유럽의 건설사들이 진출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며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자 국내 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

- 카타르 공공사업청(Ashghal)은 규모가 100만 카타르 리얄(2,750만 달러) 미만의 사업의 시공자를 국내 건설사로 제한하였고, 100만~200만 카타르 리얄의 사업은 국내 건설사 혹은 국내건설사 지분이 51%이상인 합작투자(JV)에만 허용하고 있음.

○ 또한 국가에서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어 여러 정부기관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발주과정이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편임.

【유 나 영】

4) 국영 카타르철도개발공사(Qatar Railways Development Comapany: QRDC)의 자회사임. QRDC는 국영 카타르 부동산투자회사(Qatari Diar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와 독일 철도회사인 Deutsche Bahn의 합작사임.

5) 연륙교(連陸橋):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